

# 사설

## 조계종의 2대 선거

해산위기에 처하기까지 했던 조계종 중앙총회가 이번 임시총회에서는 한가지 중요한 일은 결정했다. 초미의 관심사인 총무원장선거와 총회의원들의 선거일정을 확정했기 때문이다.

제2기 개혁총단을 이끌어 갈 주역들을 뽑는 이번 선거는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돌이켜 보면 제11대 중앙총회와 총무원회는 우리 종도들의 기대를 충족시켜 주지 못한 개혁총단이었다는 아쉬움을 남긴 것이 사실이다. 총회는 성원미달로 열 번이나 유회되고, 급기야는 해산론까지 제기되었던 것이다. 개혁총단 초기의 개혁정신은 실종되었고, 대외기관으로서의 기능을 거의 잃어버린 듯한 모습을 보여 주었다. 총무원도 "개달음의 사회화"를 주창하며 총승구제에 적극 나섰지만 실천적인 힘이 부족했다는 목소리가 높다.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재가불자의 종단참여가 제도적으로 막혀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많았다. 또한 4년 전의 선거당시 보여준 흑색선전등을 동원한 행태는 일부 교구본사 주지사에게도 이어져 불자들에게 적잖은 실망을 안겨 주었던 것이다. 세속의 정치판에서 볼 수 있는 타락선거가 반복됐던 것이다.

따라서 이번 선거는 대단히 중요하다. 또다시 이런 과거의 추태를 되풀이해서는 우리 한국불교의 장래가 어두울 수밖에 없다. 불자들의 가슴을 아프게 하는 것은 물론이고 많은 대중들이 등을 돌릴 것이다.

불교의 포교에 막대한 지장을 줄 것이 분명하다. 이번 선거를 여법하게 치르기 위하여는 입후보자나 선거권자는 다음과 같은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우선, 참신하고 덕망있는 후보자가 뽑혀야 한다. 문종이나 인맥, 파벌에 매여 구태연한 지난날의 선거행태

를 또다시 연출해서는 안된다. 지금 우리는 21세기의 문턱에 서 있다. 새로운 세기를 준비하고 새시대에 불교중흥을 이룰 수 있는 파수꾼이 필요한 때이다. 수행을 통해 청정성을 인정받고 행정력을 가진 총무원장 후보가 나와야 한다. 총회의원들도 진정으로 사부대중을 대표하여 총회를 이끌어 갈 수 있는 자질이 요구된다. 지난 11대 총회와 같은 모습을 종도들은 더 이상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다음으로는 공명정대한 선거풍토를 이룩해야 한다. 승가본연의 자세를 잃고, 후보자들간의 인신공격과 흑색선전이 난무한다면 한국불교의 발전은 유보될 수밖에 없다. 승승을 진작하고 포교, 역경, 도제양성의 과제를 올바르게 실천할 수 있는 정책대결의 장이 되어야 한다.

우리 불자들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들이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고 있다. 이번 선거에 직접 참여하지 못하는 불교계의 각계각층에서도 적극적인 관심과 감시활동이 필요하다. 공명선거를 촉구하는 연대활동도 필요할 것이다. 아울러 선거관리의 공정성과 엄격성이 생명임을 명심해야 한다. 선거풍토를 흐리고, 종헌준법을 위반하는 후보나 유권자는 철저히 가려내고 제재를 가해야 한다.

무엇보다 선거후에 화합승가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의연함과 대승적인 가풍을 보여줘야 한다. 본래의 부처님정신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아무리 민주적인 선거방식일지라도 남북과 갈등의 씨앗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선거의 부작용을 과감히 없애기 위한 후보들의 노력이 요구된다. 선거전에 미리 사부대중앞에서 후보자들이 함께 서약하면 좋을 것이다.

이번 총단의 선거투표는 정말 여법하게 이루어져서 한국불교중흥의 기틀이 마련되길 바란다.

# 남-북 '대장경 해제' 책-CD롬 나온다

### 장경연구 6권 출판... 누리미디어 북한판 CD출시

남한과 북한에서 펴낸 <팔만대장경 해제>가 CD롬과 책으로 잇따라 나온다.

고려대장경연구소(소장 종림)는 다음달 중순 6권 분량으로 <팔만대장경 해제>를 펴낸다. 장경연구소는 팔만대장경 전산화사업의 일환으로 지난해 5월 동국대 정승석교수에게 해제 집필을 의뢰했다.

장경연구소 <해제>는 모두 6권 3천5백쪽 분량에 이른다. 1-3권은 팔만대장경 해제, 4권은 주해와 저·역자, 대장경 고유번호 등에 따른 세부목록, 5권은 가나다 순에 따른 총목록, 6권은 색인으로 구성했다.

장경연구소 <해제>는 △북한판과는 달리 원전의 개략적인 소개보다 주제 전달에 중점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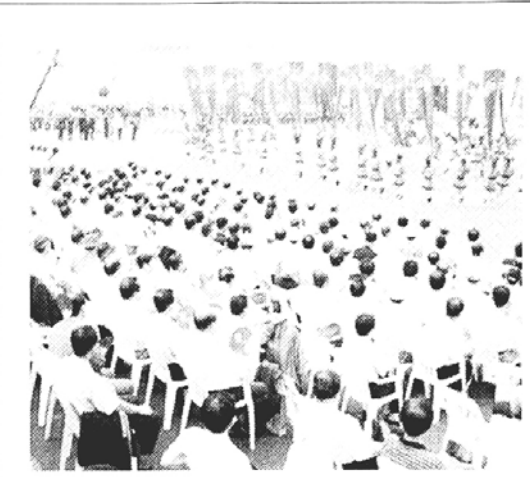
두었으며 △경전 명칭을 가나다 순에 따라 사전식으로 편찬해 이용의 편의를 도모한 것이 특징이다.

장경연구소장 종림스님은 "북한판 해제와 동국역경원의 한글대장경 해제, 그동안의 팔만대장경 연구성과를 바탕으로 하고 있어 '고려대장경 통합 해제'인 셈"이라며 "실용적인 내용분류체계를 통해 방대한 불전들을 주제별로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CD롬 팔만대장경 해제>는 북한 사회과학출판사의 91년판 해제본 15권을 전체 입력한 것으로 누리미디어(대표 최순일)가 10월중 출시할 예정이다. CD롬에는 팔만대장경 해제와 함께 각국의 팔만대장경, 한국

의 불교, 한국의 불교미술을 곁들여 팔만대장경과 한국불교에 대해 폭넓게 이해할 수 있도록 내용을 꾸었다. 북한의 불교문화사 사진 50여점을 넣어 시각적 효과를 높였다.

북한은 87년 사회과학원 민족고전연구소에서 25권으로 <팔만대장경 해제>를 발간. 91년에 15권으로 축소해 펴냈다. 우리나라에는 91년판 <해제>가 94년 들어와 판매됐다. 정성운 기자 (swjung@buddhapia.com)



### '98 경주세계문화엑스포 개막

'새 천년의 미소'를 주제로 하는 '98 경주세계문화 엑스포가 11일 오전 11시 경주 보문단지 엑스포 행사장 전승의 마당에서 개막식을 갖고 화려한 막을 올렸다. 이날 개막식에는 김대중대통령을 비롯한 국내외 귀빈 등 2천5백명이 참석했다. 불교계에서는 조계종 총무원장 월주스님, 불국사주지 성타스님, 운문사주지 명성스님 등이 참석했다. 경주세계문화엑스포는 11월 10일까지 계속된다.

# '노숙자 쉼터' 대폭 늘린다

### 서울시 10월까지 113곳으로... 교계 10여곳 더 개설

서울시는 10월말까지 '노숙자 쉼터'를 1백13곳으로 확충하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또 노숙자 쉼터 운영방식을 '20~30명씩 소규모 분산 입소'형으로 바꾸고, 노숙자쉼터에 입소한 노숙자 전원을 공공근로사업에 취업시키기로 했다.

시는 이를위해 시내 82곳의 종합사회복지관 모두에 노숙자 쉼터를 만들도록 했으며, 종교·사회단체 등의 협조를 얻어 민간시설에도 쉼터를 조성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해명복지원, 승가원 등 불교계 사회복지법인 산하 10여개 복지관이 새로 쉼터를 마련하게 될 전망이다.

지방사회복지관은 이미 '지방보건의정' 시설을 마련, 이날중을 기점으로 개원할 예정이며 길음종합사회복지관 등 교계 복지관들은

이미 노숙자를 위한 이동 사회 복지관을 운영하는 등 노숙자복지의 노후를 쌓아 놓은 상태라 쉼터 개관에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사회복지재단 박찬정과정장은 이와관련 "서울시가 종교·시민단체를 주축으로 한 노숙자 시설 설치가 지역 이기주의로 어

려움에 부닥치자 기존 복지시설인 종합사회복지관을 활용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노숙자 대책에 '지역 이기주의'가 심각하다고 판단, 노숙자 시설 설치를 제외해달라고 구청장에게 민원하는 사례를 수집해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김재경 기자 (jgkim@buddhapia.com)

# 종무행정 표준화-전산화 사찰 조계종, 법주사등 18곳 시범지정

조계종이 전국 본말사 가운데 18개 사찰을 '종무행정 표준화 및 전산화 시범사찰'로 정하고 종무행정 표준화와 전산화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조계종은 18개 시범사찰에 대한 현황 파악을 금년내로 마치고 내년부터 표준 종무행정 프로그램을 개발해 2000년부터 전국 본말사의 행정업무를 표준화 전산화 한다는 방침이다. 임연태 기자 (yitim@buddhapia.com)

# 전문기관 추천자도 포교사고시 응시 가능

### 조계종 적극검토...1년 인턴제도 도입

조계종의 포교사고시 응시자격이 종단등록 불교대학 졸업생 이외에 사회복지재단 등 포교원이 인정하는 분야별 전문기관의 추천을 받은 사람도 응시토록 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또 포교사 인턴제를 도입하되 수습기간을 1년으로 해 포교사단 사무국이 구성한 수습교육팀이 진행기로 했다. 수습교육팀은 기존 포교사로 구성된다. 조계종포교사단은 5일 열렸던

'포교사 제도 개선을 위한 토론회' 내용을 토대로 마련한 포교사 배출·관리 개선안에서 이같이 밝혔다.

연수교육은 연수를 수련과 전문교육의 두 종류로 구분해 수련은 1회, 전문교육은 전문분야별로 년중 계획하여 실시한다. 또 기존의 포교사를 모두 포교팀으로 재편성하기로 하고, 이를 99년도 중점사업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정성운 기자

# 軍 행사시 종교의식 금지 국방부

앞으로 군부대 공식행사에서 특정종교의 의식이 금지된다. 국방부는 종교편향대책위원회가 해병대 군종사령 서울역 앞 집단선교행위 관련자의 징계 재심을 요청하는 공문에서 이같이 밝혔다.

국방장관 명의로 8월 29일자 로 보낸 답변서에서 국방부는 △군종업무에 관한 규정의 철저 이행을 각군에 지시했으며, 유사사고 발생시 해당 종단의 군종지정 재검토 △비인가 집단

종교행위의 금지 △부대공식 행사에 특정종교 의식 금지를 조치했다고 밝혔다.

특정종교 의식 금지와 관련해 조계종포교원은 "군종활동 위축이 우려되나 종교편향을 근절키 위한 교육지책으로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정성운 기자

### 종교화합간담회

#### 국방부, 10월23일

군종장교 파견 종교대표자 간

담회가 열린다. 국방부 군종실은 9일 종파간 상호협조 및 군종활동에 대한 이해를 도모키 위한 간담회를 10월 23일 국방회관에서 개최키로 했다고 밝혔다.

국방장관 초청 형식으로 이뤄진 간담회에는 조계종포교원장, 개신교 군종파송협의회장 김중도목사, 천주교 군종교구장 정명조 주교, 평신도 대표로 불교에선 국방부 총신도회장 박기준 소장, 군에선 한용택 국방장관과 차관, 차관보, 인사국장, 군종실장, 각군 군종감 등이 참석한다. 정성운 기자

현대만평

세계불교대학

21세기는 밝다

737-8881

# 중앙승가대의 총무원청사 무단점거농성을 우려한다.

중앙승가대 학인들이 총무원을 무단 점거 농성하고 있다는 소식을 접하며 우리 중앙총회 서명위원들은 유감과 우려의 뜻을 표할 수밖에 없다. 이는 개혁 이전 구 총무원시설에나 있었던 작태에 다름 아니며 최근 국민과 사부대중에게 크나큰 실망감을 심어줬던 사건에 이어 종단의 위신에 심대한 타격을 입히는 행위라고 본다.

더욱이 아직 비구제도 수지하지 않은 사미·사미니의 신분으로 종단행정의 구심인 총무원청사에 난입하고 숙소에 있던 소임자스님들을 청사밖으로 내몬 것은 어떠한 변명으로도 용서받을 수 없는 정경파탄 행위로 규정할 수 밖에 없다.

중앙승가대학은 종단 기본교육기관의 중추요 교학연구의 요람이다. 이에 속한 젊은 학생들의 본분은 집단이기주의적 요구를 물리적으로 관철하는 것도, 특정인의 정치적인 입장을 대변해서 여타의 학생들을 선동하는 것도 아니다. 학내의 문제는 가급적 학내에서 풀고 부득이한 경우 교육기관장을 통해 종단에 제기해야 한다.

이번 사태의 원인은 학인들의 우발적이고 충동적인 치기에서 나왔다고 보기에는 그 원인이 깊다. 교계 내외에서는 언젠가부터 승가대에 대한 비판의 여론이 비등해 있었다는 사실이 그 반증이다. 승가대가 교육기관으로서의 역할보다는 마치 종단정치의 사당을 형성하는 장으로 자리매겨지고, 수행과 교학연구보다는 세속의 가치를 더 지향하며 전래의 계율의식이 무너지는 곳이라는 내용이 비판의 주요한 골자다. 더욱이 이러한 중앙승가대 실상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집단이 실제 존재한다는 사실은 우리를 더욱 우려스럽게 만든다.

이러한 제반문제의 원인 가운데 하나는 여태까지 점철되어왔던 중앙승가대의 잘못된 학풍과 집단적인 물리력을 두려워하고 좌시해왔던 우리 중앙총회의원을 비롯한 교계 중진스님들의 소극적 태도에서 비롯되었다. 중앙승가대 문제를 이대로 좌시하고 방치하게 된다면 결국 종단총리의 문제로까지 비화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우리 서명위원 일동은 이제 결단과 애정어린 질타의 채찍을 들고 그동안의 그릇된 풍조를 시정해나가야 할 때라고 판단한다.

이번 무단 점거농성사태에서 기본이력도 마치지 않은 학생으로서의 입에 담기 어려운 "종단 접수 운운"하는 이야기들이 경박하게 언급되고, 종헌준법상 징계사유로 명문화한 주지인사문제까지 거론됐다고 하니 이는 분명 학생의 본분을 망각한 처사가 아닐 수 없다.

특히 처음 성명서와 다음날 발표한 성명서의 내용이 서로 상이하고, 전체 중앙승가대 학생은 물론 농성단 내에서조차 통일되지 못한 요구사항이 마치 전체의 요구인양 발표됐다고 하니 모종의 저의를 품은 배후가 존재하지 않나 의심스럽기도 하다.

우리 교계의 중진들은 지금이라도 즉시 학생 자신들이 스스로의 과오를 부처님과 선배 스님들께 참회하고 면학과 학교발전에 이바지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길 간곡히 바란다. 종단 집행부는 엄중하고도 단호하게 대처하여 실추된 종단의 기강을 바로 세우고 권위를 회복할 것을 촉구한다. 더 이상 사태를 장기화하거나 악화시킬 경우 중앙승가대대학의 발전은 물론 종단발전에도 추호의 도움도 되지 않음을 직시하여 나아갈 때와 물러설 때를 가리는 지혜와 용기를 발휘하길 기대한다.

불기 2542년 9월 11일

# 대한불교조계종 중앙총회 서명위원 일동

법등 일면 법성 영담 지홍 석호 대원 종림 장곡 덕상 무산 선봉 선용  
원명 원행 평상 성오 영조 명진 현봉 여연 범각 정념 영환 동명 현진 수완